



이름:

WEEK 20

May 12

사사기 15장

14장에서 시작된 삼손의 개인적 감정과 복수가 이제는 민족 간의 갈등으로 확장됩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겨 주게 됩니다 (12-13절). 결박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밧줄이 그의 손에서 떨어지고, 삼손은 나귀의 턱 뼈를 주워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여 무려 일천 명을 죽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내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 일천 명을 단 한번에 죽일 만큼 강한 힘을 가진 삼손도 물이 없으니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히에서 물을 내어 주시는데, 삼손이 그 샘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나요?

*삼손의 기도는 단순한 생존의 외침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삼손의 외침처럼 우리도 목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샘을 터뜨리시고 응답하십니다.

사사기 16장

본장은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죄)에 넘어가 겪게 되는 수치와 고통, 죽음의 순간을 기록합니다.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이 태어날 때, 삼손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사사기 13:5)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도 않은 채 마음대로, 감정대로, 실수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삼손이 믿음으로, 나실인으로, 사사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May 13

사사기 17장

17-21장은 사사기의 부록으로, 이스라엘의 사회적, 종교적 부패와 무질서, 사사시대의 암흑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장은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가족의 혼합주의 신앙(신상을 만들기 위해 은을 여호와께 드리는)과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반율법적인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6절)

사사기 18장

17장에서는 미가 가족의 죄악상을 기록하였다면, 본장은 미가가 섬기던 우상이 단 지파에게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며 죄악이 확산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미가의 가족을 위해 섬기던 레위인은 더 좋은 조건을 따라 단 지파에게로 들어가는 타락한 영적지도자의 모습을 낱말이 보여줍니다. 성경은 마지막 부분 30절에서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나중에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의 족보와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나요?(30절)

*사사기의 저자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폭로합니다. 베들레헬에서 온 레위인은 다름 아닌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의 집안도, 그 무너진 시대의 타락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명문가의 후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May 14

사사기 19장

본장은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에 의해 발생한 레위인 첩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 상태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은 불쌍하게 죽어갔고 시신도 훼손되었습니다. 주인공인 레위인이 첩을 가진 것이나, 그 첩이 음행을 저지르고 도망간 일이나, 돌아오는 길에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무정함이나 모두 타락한 시대상의 단면들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기브아의 불량배들부터 레위인과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1절에서, "이스라엘에 ()이 없을 그때에".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자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살아간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May 15

사사기 20장

이스라엘 각 지파는 기브아에서 일어난 레위인 첩의 죽음에 대해 모여 의논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가해자를 내 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이를 거부하자, 이스라엘은 그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첫 이틀 동안은 베냐민이 승리하지만, 셋째 날에는 이스라엘이 전략적으로 기브아를 함락시키고, 베냐민을 거의 전멸시킵니다.

- 1) 첫째날 이스라엘의 희생자 수(21절):
- 2) 둘째날 이스라엘의 희생자 수(25절):
- 3) 셋째날 베냐민의 희생자 수(35절):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진 이 기브아 내전은 승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 누구도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전쟁은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본장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으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고 사사시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반복하여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8:7절을 찾아서 답을 써 보세요)

May 16

룻기 1장

본장은 사사시대를 살았던 엘리멜렉 가족의 모압으로의 이민생활을 기록합니다. 당시 나오미가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1) 1절: 흉년
- 2) 3절:
- 3) 5절: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죽음

*모압 이민생활 10년동안 가족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뜻: sweet)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뜻: 괴로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그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22절) 빈 손으로 회개하며(22절의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회개한다'의 의미도 있음) 하나님께 나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룻기 2장

본장에서 보아스는, 모압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것과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온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친절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축복합니다.(11-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 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 주시기를 원하노라."

May 17

룻기 3장

여호와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2:12) 룻은 이제 구속자인 보아스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구합니다(9절).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한편, 룻의 경제적인 필요까지 채워줍니다. 보아스는 룻의 겉옷에 무엇을 담아 주었나요?

룻기 4장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기로 하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나와 '()'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보아스에게도 룻을 통해 후손을 주실 것'을 노래합니다(12절). 다말은 가나안 여인으로 유다의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다말은 우여곡절 끝에 창녀로 꾸며 유다와 관계를 갖고 후손을 낳게 되는데(창세기 38장), 유다 지파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수치스러운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백성들은 룻에게서 다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력한 구속자 보아스를 통해 룻을 구속하셨고, 다말과 유다처럼,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도 큰 복을 베푸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시작하는 1장은 슬픔으로 가득차 있지만, 마지막 4장은 기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은 죽음으로 시작하여 생명으로 마칩니다.